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892
----------	-----

제안년월일 : 2012. 6. 26.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주문

- 2008년 이후 매년 교육용 전기료가 인상됨에 따라 일선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통해 내실있는 공교육 강화를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정부의 학교 선진화 정책에 따른 학교시설의 현대화로 인하여 일선 학교의 전력사용량은 점점 더 늘어날 추세이며,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에서 전 과목의 교과서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의 전력사용량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 2008년 이후 정부는 매년 교육용 전기료를 인상하여 왔으며, 일선학교에서는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전기료의 인상으로 인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혹서기에는 에어컨의 가동률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담의 가중으로 에어컨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절약 운동의 자발적 동참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절약만을 강조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며 적정수준의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교육이라 할 것이므로 정부는 공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해줄 의무가 있음.
- 그동안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전기료와 특별히 구분하고 있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교육용 전기료를 인상하기 보다는 인하하여야 마땅할 것임.

3. 이송처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첨부 :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건의문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건의문

정부의 학교 선진화 정책에 따른 학교시설의 현대화로 인하여 일선 학교의 전력사용량은 점점 더 늘어날 추세이며,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에서 전 과목의 교과서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의 전력사용량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2008년 이후 정부는 매년 교육용 전기료 4.5%~6.9%씩 인상하여 왔으며, 일선학교에서는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전기료의 인상으로 인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혹서기에는 에어컨의 가동률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담의 가중으로 에어컨 사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실내온도의 상승으로 학생들의 수업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절약 운동의 자발적 동참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절약만을 강조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며 적정 수준의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교육이라 할 것이므로 정부는 공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해줄 의무가 있다.

그동안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전기료와 특별히 구분하고 있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교육용 전기료를 인상하기 보다는 인하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하여 학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하여야 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교육 선진화에 이바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